

[어원 탐구]

地名 語源 몇 가지(2)

조항범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우리는 앞서 비교적 빈도가 높은 지명 가운데, 어원 해석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꽃산, 고잔, 방아다리, 질구지, 진살미, 팔발골’이라는 지명을 대상으로 그 어원과 유래를 살펴 보았다. 이어서 본고는 그 후속 작업으로 비교적 널리 알려진 ‘곰나루, 농다리, 도라산, 말티고개, 아우내, 아차산, 피아골’이라는 지명을 대상으로 그 어원과 유래를 밝혀 보기로 한다.

2

2.1. 곰나루

‘곰나루’는 충남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나루이다. 일명 ‘고마나루’라고도 한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한 남자가 연미산에 갔다가 암굴에게 붙들려 굴속에 갇혀 있는 동안 암굴과 관계하여 새끼까지 낳았다고 한다. 하루는 암굴이 굴을 바위로 막지 않고 나간 틈을 타서 금강 물로 뛰어들어 헤엄쳐

서 건너오고 있었다. 이를 본 암곰이 급히 와서는 제 새끼를 들어 보이면서 큰 소리로 외쳤으나 그 남자는 못 본 체하고 그 강을 헤엄쳐 건너왔다. 그러자 암곰은 울면서 제 새끼를 강물에 던지고 저도 빠져 죽었다고 한다. 이 전설에 따르면 ‘곰나루’는 ‘곰이 빠져 죽은 나루’로 해석된다. ‘熊川’이라는 한자 지명은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곰나루’의 ‘곰’은 ‘熊’의 뜻이 아니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 나타나는 ‘곰’은 ‘곰개, 곰골, 곰내, 곰들, 곰말, 곰바우, 곰재, 곰치’ 등에서 보듯 ‘大’의 뜻을 보인다. 이에 따라 ‘곰나루’는 ‘큰 나루’로 해석된다. ‘한나루’라는 지명과 의미가 같다. 실제 이 나루는 금강에 있는 큰 나루여서 명실상부하다.

‘고마나루’는 ‘곰나루’에 속격의 ‘-아’가 개재되어 확장된 지명으로 간주된다. 물론 ‘-아’의 정체에 대한 논의는 더해 보아야겠지만 ‘달골’이 ‘다라골’로, ‘말골’이 ‘마라골’로, ‘살골’이 ‘사라골’로 변한 예들이 확인되므로 ‘곰나루’가 ‘고마나루’로 변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마나루’가 ‘곰나루’에서 확대 변형된 지명이므로 이 또한 ‘큰 나루’로 해석된다. 물론 ‘고마’를 ‘大’의 의미로 보지 않고 ‘北’ 내지 ‘後’의 의미로 보고 ‘고마나루’를 ‘특정 지역의 뒤에 있는 나루’로 해석하기도 하나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의 ‘곰’이 대체로 ‘大’의 의미를 띤다는 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2. 농다리

‘농다리’는 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의 세금천에 놓여 있는 다리이다. 신라 또는 고려 때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축조 연대는 알 수 없다. 돌과 자갈을 섞어 둘레 2.5미터, 높이 2미터 가량 되게 쌓아 올려 지네의 발 형국으로 놓았는데, 아무리 큰물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 ‘농다리’의 유래를 ‘뱀으면 움직이고 잡아당기면 돌아가는 돌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래 설은 믿을 수 없

다. ‘농다리’의 ‘농’은 한자 ‘籠’이기 때문이다. ‘농’은 ‘농다리’를 비롯하여 ‘농독, 농돌, 농바우, 농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아주 적극적으로 쓰인다. 농 께작을 쌓아 올리거나 농작처럼 포개져 있는 듯한 형상의 地物을 ‘농’을 이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리하여 ‘농다리’는 ‘농 께작을 쌓아 올리듯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다리’로 해석된다. 실제 이 다리는 교각을 자연석을 이용하여 축대를 쌓듯이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籠橋’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2.3. 도라산

‘도라산’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소재 산 이름이다. 높이 155미터밖에 되지 않는 작은 산인데 이 산 밑에 조성된 마을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지금 이 ‘도라산’은 경의선 철도 남한 쪽 최북단 지점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도라산’은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항복한 뒤 여생을 보낸 곳이다. 경순왕에게 시집간 왕건의 딸 낙랑공주가 경순왕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산 중턱에 암자를 마련해 주었다는 야사가 전해온다. 경순왕이 이 산마루에 올라 신라의 도읍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여 ‘도라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나 이는 전형적인 지명 전설에 불과하다.

‘도라산’은 지금 ‘都羅山’으로 쓰고 있으나 ‘都羅’는 그 본래 의미와 관계가 없는 단순한 음차 표기이다. ‘도라산’의 ‘도라’는 한자가 아니라 고유어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라산’이 ‘도리미’, ‘도라미’와 함께 쓰이고 있어 ‘도라’가 고유어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都羅山’은 ‘도라미’의 ‘도라’를 音借하고 ‘미’를 訓借한 지명이다.

‘도라미’는 ‘돌미’에 속격의 ‘-아’가 개재된 어형으로 간주된다. ‘곰나루’가 ‘고마나루’가 되듯 ‘돌미’가 ‘도라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도리미’는 ‘돌미’에 속격의 ‘-의’가 개재된 ‘도리미’로부터 변한 어형으로 볼 수 있다.

전국에 ‘돌미’라는 지명이 아주 흔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돌’을 ‘石’, ‘미’를 ‘山’의 뜻으로 보고 ‘돌미’를 ‘돌이 많은 산’으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石山’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물론 ‘미’는 ‘뫼’와 같이 ‘山’의 뜻이 분명하나 ‘돌’이 ‘石’의 뜻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돌’은 동사 어간 ‘돌-[回]’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돌말’, ‘돌모루’에서 동사 어간 ‘돌-[回]’이 확인된다.

만약 ‘돌미’의 ‘돌’을 동사 어간 ‘돌-’로 본다면, ‘돌미’는 ‘돌아가는 산’으로 해석된다. 이 산이 평야에 우뚝 솟아 있다는 점에서 어느 쪽으로 가든 돌아서 가게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돌미’가 ‘돌아가는 산’이라면 이것에서 변형된 ‘도라미’, ‘도라산’, ‘도라미’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도라’가 ‘도라말(산을 돌아가서 있는 마을)’, 도라모퉁이(돌아가는 곳에 있는 모퉁이), 도라재(돌아가는 고개) 등에서 보듯 ‘回’의 뜻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도라산’이 ‘돌아가는 산’이라는 의미가 부각된다.

그런데 ‘돌미’의 ‘돌’이 동사 어간 ‘돌-[回]’이라면 과연 동사 어간과 명사 사이에 속격의 ‘-아’가 개재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후기중세 국어에서 이러한 조어 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나 그보다 이전 시기에는 이러한 조어 규칙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2.4. 말티고개

<한글땅이름큰사전>(1991)을 보면 전국에 ‘말티고개’라는 지명이 십여 개 나온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은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갈티리 소재 ‘말티고개’이다. 이곳의 ‘말티고개’는 가파른 산허리를 수없이 돌고 도는 아주 길고 높은 고개이다. 이 고개를 ‘말티고개’ 이외에 ‘말티’, ‘말재’, ‘말티재’라고도 부른다.

‘말티’라는 지명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말티고개’는 ‘말티’에 ‘고개’를 덧붙인 어형임을 알 수 있다. ‘말티’에 대해서는 ‘말’을 ‘馬’의 뜻으로 보고 ‘지형이 말처럼 생긴 고개’, ‘말의 머리에 혈이 있는 고개’ 등으로 해석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말티’의 ‘말’은 ‘말골, 말들, 말등, 말매, 말무덤, 말바우, 말배미, 말산, 말재’ 등에 보이는 ‘말’과 같이 대체로 ‘大’의 뜻을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원적으로 보면,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의 ‘말’이 ‘馬’의 ‘말’로 소급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는 있다. 일찍이 ‘물피’ <龍飛御天歌 5:42>라는 지명이 ‘馬山’으로 漢譯되어 있는 것이나, 지명은 아니더라도 ‘물벌’ <同文類解 下:42>이라는 벌 이름을 ‘馬蜂’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등이 그러한 시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 시기에 보이는 ‘물’이나 현존 지명에 쓰이고 있는 ‘말’을 ‘馬’의 뜻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馬’로부터 파생된 ‘大’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물>말’이 ‘馬’라는 구체적 의미에서 ‘大’라는 비유적 의미로 변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말’이라는 동물이 다른 동물에 비해 몸집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지명의 선행 요소로 나타나는 ‘말’이 대체로 ‘大’의 뜻을 보인다는 점에서 보면 그 기원을 ‘물[馬]’이 아니라 ‘믈[宗]’에서 찾을 수도 있다. 특히 외형이 큰 지형이나 지물을 지시하는 데에 ‘믈’과 유사한 어형인 ‘마르, 마루, 마리’ 등이 쓰이기도 하여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령 ‘말티’와 같은 의미인 ‘마리티’에 ‘宗北’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는데 이는 ‘마리’가 ‘믈’과 같은 ‘宗’의 뜻을 분명히 보여준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 나타나는 ‘말’이 ‘마르, 마루, 마리’ 등과 같은 계열이라면 이 ‘말’은 ‘믈’에서 줄어든 어형으로 볼 수 있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 쓰인 ‘믈’이 우연히 ‘말’로 줄어들고 이어서 ‘말’로 변하자 어형이 같은 ‘馬’의 ‘말’로 오해하게 되어 지명의 선행 요소로 나타나는 ‘말’을 의심 없이 ‘馬’의 뜻으로 해석하게 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지명에 나타나는 ‘말’의 기원이 ‘물[馬]’에 있던 ‘믈’에 있던 그 의미를 ‘大’로 보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말티’의 ‘말’을 ‘大’로 해석한다.

그런데 ‘말티’에 보이는 후행 요소 ‘티’의 정체는 분명하지 않다. 이 ‘티’를 ‘귀티, 애티, 촌티’ 등에 보이는 ‘티’와 같은 종류의 접미사로 보는 설이 있기는 하나, 이들에 보이는 ‘티’와 고개 이름에 등장하는 ‘티’ 사이에는 아

무런 의미적 연관성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 ‘티’를 한자 ‘峙(치, 산이 우뚝하다)’로 보기도 한다. 이는 ‘티’를 포함한 고개 명칭이 한자화할 때 ‘티’가 ‘峙’로 바뀐다는 데에 근거를 둔 설명이다. 그러나 ‘峙’ 자의 연원과 그 한자음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티’가 한자 ‘峙’에서 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저 ‘티’를 ‘재’와 같이 ‘고개’를 뜻하는 단어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지명에서 ‘티’는 구개음화하여 ‘치’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말티’는 ‘큰 고개’로 해석된다. 고개가 크고 높아서 붙여진 이름임에 틀림이 없다. 아울러 ‘재’를 포함하는 ‘말재’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큰 고개’는 ‘말티’나 ‘말재’로 표현하면 족한데, 굳이 ‘말티고개’나 ‘말티재’와 같은 同義 重複形 지명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티’의 ‘嶺’으로서의 지시 의미가 약해지자 그 지시 의미를 보강 내지 강화하기 위해 ‘嶺’으로서의 지시 의미 기능이 강한 ‘고개’와 ‘재’를 덧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말티’, ‘말재’가 고개 밑에 조성된 마을 이름으로 전용되어 쓰이게 되자 ‘말티’, ‘말재’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임을 나타내기 위해 ‘嶺’을 지시하는 ‘고개’와 ‘재’를 덧붙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전자로 보면 ‘말티고개’는 ‘말티’와 같이 ‘큰 고개’의 뜻이고, 후자로 보면 ‘말티 마을에 있거나 그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가 된다.

2.5. 아우내

<한글땅이름큰사전>(1991)에 ‘아우내’라는 지명은 실려 있지 않다. 물론 ‘아우내’와 어형이 유사한 ‘아오내’나 ‘아으내’는 실려 있다. 그러나 ‘아우내’는 유관순 열사가 독립 만세 운동을 이끌던 성지로 너무나 잘 알려진 곳이다. 지금의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가 바로 그곳인데 예전부터 큰 장이 섰기에 ‘아우내 장터’, 또는 줄여서 ‘아우내장’이나 ‘아내장터’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아우내’는 바로 ‘아오내’에서 제2음절의 모음 ‘오’가 ‘우’로 변한 어형이다. 그리고 ‘아오내’는 ‘아올내’에서 ‘ㄴ’ 앞의 ‘ㄱ’이 탈락한 어형이다. ‘아올내’가 ‘아오내’로 변한 것은 ‘물논’이 ‘무논’이 되고, ‘하늘담’이 ‘하느담’을 거쳐 ‘하느담’이 되는 것과 같은 음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아우내’는 ‘아올내’에서 ‘아오내’를 거쳐 나온 어형임을 알 수 있다.

‘아올내’는 동사 어간 ‘아올-’과 명사 ‘내’가 결합된 어형이다. 즉 ‘동사 어간 + 명사’ 구조의 지명인 셈이다. 이러한 구조의 지명은 ‘건너들, 돌내, 울바위’ 등에서 보듯 아주 흔하다. 동사 어간 ‘아올-’은 이미 15세기 문헌에 나온다. 이 시기에는 ‘아올-’과 더불어 ‘어울-’도 보인다. ‘아올-’은 근대국어 이후 제2음절의 모음이 변하여 ‘아울-’이 된다. 이들 ‘아올-’이나 ‘어울-’ 및 ‘아울-’은 ‘아우르다/어우르다’ 또는 ‘합하다’의 뜻이다.

그런데 이들은 어느 시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오르-’, ‘어우르-’, ‘아우르-’로 대체되어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어울-’은 파생 명사 ‘어우리(일정한 계약 아래 일을 함께 하고 거기에서 나는 이익이나 생산물을 서로 나누어 가짐)’에서, ‘아올-’은 ‘아우내’와 함께 쓰이는 ‘아오내’에서, ‘아올-’은 파생 부사 ‘아올리’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아올내’의 후행 요소 ‘내’는 물론 ‘川’의 뜻이다. 그러므로 ‘아올내’는 ‘아우른 내’ 즉 ‘합쳐진 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아오내’나 ‘아우내’도 그러한 의미를 띤다. ‘어오내’ 또는 ‘아우내’는 ‘잣밭내[栢田川]’와 ‘치랏내[葛田川]’라는 두 내가 습수되는 물목이어서 그러한 명칭과 부합한다. 이 ‘아오내’ 또는 ‘아우내’를 한자로 바꾼 지명이 ‘竝川’이다. 고유어 지명 ‘아오내’ 또는 ‘아우내’와 한자어 지명 ‘竝川’은 본래 내 이름이지만 후행 요소를 생략한 채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두 물줄기가 만나 합쳐진 내를 ‘아오라지/아우라지’, ‘두물머리’, ‘합수머리’, ‘모듬내’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아오라지/아우라지’라는 지명은 전국 여러 곳에 분포하는데 강원도 정선군의 것이 가장 유명하다. 이곳의 ‘아오라지/아우라지’는 ‘골지천’과 ‘송천’이 맞닿는 물목이어서 두 물줄기가 합쳐

지는 내임이 분명하다.

‘아오라지’는 ‘아오내’의 ‘아오-’와 같이 ‘아울-’을 포함하는 어형이다. 그런데 후행하는 ‘아지’의 정체는 분명하지 않다. ‘아지’의 ‘지’는 ‘늘지, 셋지, 으뜸지’ 등과 같은 강원도 일대에 서 발견되는 지명이 포함하는 ‘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이 ‘아오라지’의 제2음절 모음 ‘오’가 ‘우’로 변한 어형이 ‘아우라지’이다.

‘두물머리’의 ‘두물’은 ‘두 갈래의 물줄기’의 뜻이고, ‘머리’는 ‘顛’의 뜻이다. 그러므로 ‘두물머리’는 두 물줄기가 합류하는 머리 부분 지역을 가리킨다. ‘合水머리’라는 지명과 의미가 같다. ‘두물머리’로 가장 유명한 곳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강이다. 이곳의 ‘두물머리’는 북한강과 남한강의 두 물줄기가 합류하는 머리 부분에 해당한다.

‘모듬내’의 ‘모듬’은 고어 ‘뭉-[畝]’에서 파생된 명사로 ‘모임’과 의미가 같다. ‘모듬날’, ‘모듬회’에 등에 보이는 ‘모듬’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모듬내’는 ‘두 물줄기가 모이는 내’의 뜻이다. 두 내가 합류하여 한 물줄기를 이루는 내를 그렇게 부른 것이다. ‘畝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2.6. 아차산

‘아차산’이라는 산 이름이 <한국땅이름큰사전>(1991)에 여섯 개 정도 나온다. 이들 가운데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 북쪽에 있는 ‘아차산’이 가장 유명하다. ‘阿且山’이나 ‘峨嵯山’ 등으로 쓰고 있으나 ‘阿且’나 ‘峨嵯’는 음차 표기일 뿐이다.

‘아차산’이라는 지명은 일단 ‘아차’와 ‘산’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아차’는 ‘아차산’을 비롯하여 ‘아차고개, 아차골, 아차실’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비교적 적극적으로 쓰인다. 그런데 이 ‘아차’의 어원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이 ‘아차’를 포함하는 지명이 지시하는 대상이 대체로 작은 규모라는 점에서 ‘아차’가 ‘少, 微’의 의미를 지니는 중세국어 형용사 ‘앗-’과 관련된 어형일 것이라는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더라도 ‘아차’의 제2음절 모음 ‘아’가 무엇이나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 ‘아’는 앞에서 살핀 ‘고마나루’, ‘도라산’ 등에 보이는 ‘-아’와 같이 일종의 속격으로 간주된다.

물론 그렇게 보더라도 형용사 어간 ‘얏-[少]’과 명사 ‘산’ 사이에 속격이 개재될 수 있느냐는 더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어쨌든 ‘아차산’이 ‘얏산’으로 소급한다면 ‘아차산’은 ‘작은 산’으로 해석된다. 실제 대부분의 ‘아차산’이 낮고 작은 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 해석과 부합한다.

물론 ‘아차산’이 모두 규모가 작은 것만은 아니다. 충남 홍성군 광천읍 답산리 소재 ‘아차산’은 424미터이고, 충북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 소재 ‘아차산’은 291미터에 이른다. 전자의 ‘아차산’은 오서산 다음으로 높고, 후자의 ‘아차산’은 ‘박달산’ 다음으로 높다. 이렇게 보면 ‘아차산’은 주변에 있는 큰 산과 비교하였을 때 작다는 관점에서 조어진 것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2.7. 피아골

전국에 ‘피아골’이라는 지명이 대단히 많다. 지리산의 ‘피아골’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 피아골에 대해서는 여러 유래 설이 전한다. ‘피아골’의 ‘피’를 ‘血’의 ‘피’, ‘避難’의 ‘避’, ‘피씨’의 ‘皮’로 보고 ‘피를 많이 흘린 골짜기’, ‘전쟁 때 피난 온 골짜기’, ‘피씨들이 모여 살던 골짜기’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재미 삼아 붙여본 민간어원에 불과하다.

‘피아골’은 ‘피밭골’의 변형으로 간주된다. ‘피밭골’이 ‘피밭골’로 변했다가 ‘피왓골’과 ‘피앗골’을 거쳐 ‘피아골’로 남게 된 것으로 본다. ‘피밭골’은 ‘피밭’과 ‘골’로 분석된다. ‘피밭’의 ‘피’는 ‘돌피를 개량한 밭작물’인데, 골짜기와 같은 경사진 곳에서 잘 자란다. 이 ‘피’를 심은 밭이 ‘피밭’이고, 이 ‘피밭’이 있는 골짜기가 ‘피밭골’이다. ‘피밭골’에서는 ‘稷田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전국에 ‘피아골’이라는 지명과 함께 ‘피밭골’이라는 지명도 널리 분포한다. ‘피밭골’이 ‘피밭이 있는 골짜기’를 가리킨다면, ‘피밭골’에서 변한 ‘피아골’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물론 ‘피아골’을 ‘비알골’에서 변한 ‘비아골’에서 온 것으로 보기도 한다. ‘비알골’을 ‘비탈이 심한 골짜기’로 이해한 뒤 ‘비아골’이나 ‘피아골’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아골’이 ‘피밭골’로 소급하고 ‘피밭골’에 ‘稷田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아골’이 ‘비알골’에서 온 것으로 바라보기는 힘들지 않나 한다.

‘피아골’은 본래 골짜기 이름이지만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마을 이름으로서의 ‘피아골’에는 특이하게도 ‘飛下洞’이나 ‘飛霞洞’과 같은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이들 한자 지명은 ‘피아골’과 관련하여 이차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피아골’이 ‘비아골’로도 소리가 나자 ‘비하’를 한자 ‘飛下’ 또는 ‘飛霞’로 오인한 뒤 ‘골’을 ‘洞’으로 바꾸어 ‘飛下洞’ 또는 ‘飛霞洞’과 같은 엉뚱한 지명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飛下洞’이라는 지명은 근교에 ‘飛上里’라는 지명이 있다는 점에서, ‘飛霞洞’은 이 골짜기에 안개가 자주 낀다는 점에서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진다.

3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곰나루’는 ‘곰’과 ‘나루’로 분석된다. 지명의 선행 요소 ‘곰’은 ‘大’의 뜻을 보여 ‘곰나루’는 ‘큰 나루’로 해석된다. 아울러 ‘곰나루’에 속격의 ‘-아’가 개재된 것으로 파악되는 ‘고마나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2) ‘농다리’는 ‘농’과 ‘다리’로 분석된다. ‘농’은 한자 ‘籠’이다. 그리하여 ‘농다리’는 ‘농 께 짝을 쌓아 올리듯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다리’로 해석된다.

(3) ‘도라산’은 ‘都羅山’으로 쓰고 있다. 이는 속지명인 ‘도라미’의 ‘도라’를 音借하고, ‘미’를 訓借한 지명이다. ‘도라미’는 ‘돌미’에 속격의 ‘-아’가 개재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돌미’는 ‘돌로 이루어진 산’ 또는 ‘돌아가는 산’으로 해석되는데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 아울러 ‘도라산’도 ‘돌아가는 산’으로 해석된다.

(4) ‘말티고개’는 ‘말티’와 ‘고개’로 분석된다. 지명의 선행 요소 ‘말’은 ‘곰’과 같이 ‘大’의 뜻을 보인다. 그리하여 ‘말티’는 ‘큰 고개’의 뜻이다. 이 ‘말티’에 ‘티’와 의미가 같은 ‘고개’가 덧붙은 어형이 ‘말티고개’이다. ‘말티고개’와 같은 동의 중복형 지명이 만들어진 것은 ‘티’의 지시 의미 기능이 약화되자 그 기능을 보강 내지 강화하기 위해 ‘티’와 지시 의미가 같은 ‘고개’를 덧붙인 것일 수도 있고, ‘말티’가 고개 이름에서 마을 이름으로도 쓰이자 그 마을에 있는, 또는 그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임을 지시하기 위해 ‘고개’를 덧붙인 것일 수도 있다.

(5) ‘아우내’는 ‘아오내’의 모음 변화형이다. 그리고 ‘아오내’는 ‘아올내’로 소급한다. ‘아올내’는 동사 어간 ‘아올-’과 명사 ‘내’가 결합된 어형으로 ‘두물줄기가 아우른 내’의 뜻이다. 아울러 ‘아오내’, ‘아우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竝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6) ‘아차산’은 ‘앗산’에 속격의 ‘-아’가 개재된 어형으로 간주된다. ‘앗산’의 ‘앗-’은 ‘少, 微’를 뜻하는 중세국어 형용사이다. 그러므로 ‘앗산’은 ‘작은 산’의 뜻이다. 아울러 ‘아차산’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7) ‘피아골’은 ‘피밭골’로 소급한다. ‘피밭골’은 ‘피밭’과 ‘골’로 분석된다. ‘피밭’의 ‘피’는 ‘돌피를 개량한 밭작물’인데 이 ‘피’가 심겨 있는 밭이 ‘피밭’이고 이 ‘피밭’이 있는 골짜기가 ‘피밭골’이다. 아울러 ‘피아골’도 ‘피밭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稷田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참 고 문 헌

- 도수희(2003), 한국의 지명, 아카넷.
 李基文(1991), 國語 語彙史 研究, 東亞出版社.
 조항범(2001), ‘地名 語源 辭典’ 편찬을 위한 예비적 고찰, 지명학6.
 조항범(2003), 지명 어원 몇 가지(1), 새국어생활 제13권 제3호, 국립국어연구원.
 한글학회(1966~1986), 한국 지명 총람.
 한글학회(1991), 한국땅이름큰사전(상)(중)(하).